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7위... 동계올림픽 출전권 1+1 획득

아이스댄스 임해나-권에 최종 18위... 올림픽 티켓 1장 확보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7위에 오르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별 출전권 1+1장을 획득했다.

차준환은 30일(한국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TD가든에서 펼쳐진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3.22점, 예술점수(PCS) 86.11점을 더해 총점 179.33점을 받았다.

앞서 쇼트프로그램에서 86.41점을 얻었던 차준환은 최종 총점 265.74점으로 7위에 올랐다.

차준환이 10위 이내로 대회를 마치면서 한국은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출전권을 최소 1장, 최대 2장 확보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 2명 이상이 출전하는 국가는 상위 랭킹 2명의 성적을 합해 출전권을 땀다.

2명의 순위 합이 13이하면 3장, 28이하면 2장을 받는다.

한국은 차준환이 7위에 올랐으나, 김현겸(고려대)이 쇼트프로그램에서 26위에 그쳐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하지 못했다.

컷 탈락한 선수의 순위는 18로 계산돼 한국은 25를 받았다.

다만 확보한 출전권 수에서 프리스케이팅 출전 선수 명수를 뺀 나머지 티켓은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예선전을 통해 다시 확보해야 한다.

을 통해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베이징 예선은 차준환을 제외한 다른 선수가 출전해 경쟁해야 한다.

24명의 출전 선수 중 15번째로 나선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 곡 '광인'을 위한 발라드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에 성공한 차준환은 수행점수(GOE) 3.19점을 켰었다.

하지만 이어진 쿼드러플 토루프는 회전수가 부족해 두 바퀴 점프로 처리돼 10점 가까이 점수를 잃었다.

다행히 차준환은 이후 수행 과제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연기를 마쳤다. 남자 싱글 우승은 318.56점을 받은 미국의 일리아 말리닌이 차지했다. 대회 2연패다.

은메달은 카자흐스탄의 사이도르프 미카일(287.47점), 동메달은 일본의 가키야마 유마(278.19점)에게 돌아갔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남자 싱글 출전권을 3장씩 얻었다.

아이스댄스 임해나-권에 조는 프리댄스 TES 59.55점, PCS 45.72점을 합해 105.27점을 기록했다. 리듬 댄스 점수 72.04점을 더해 최종 총점 177.31점으로 18위에 올랐다.

임해나-권에 조는 국가별 분배에 따라 올림픽 출전권 1장을 확보했다.

한국 피겨가 올림픽 아이스댄스 출전권을 딴 건 2002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양태화-이천군), 2018 평창 대회(민유라-알렉산더 겐리)에 이어 3번째다.

지난 29일 끝난 여자 싱글에선 이해진



(고려대·9위), 김채연(경기일반·10위)이 2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추후 국내 선



영광군,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개최

81개팀 1,300여명, 10일간 머무르며 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제50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보조체육관, 법성고등학교 체육관 3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고농구연맹(회장 박소흠)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81개 남녀 중·고등학교 1,300여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별 예선리그부터 결선 토너먼트까지 열띤 경기를 펼친다.

또한 금년에는 남고·여고부 영광대회 우승팀에 대해 NBA에서 주관하고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10개국 초청 농구대회(2025 NBA Rising Stars 초청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되어 더욱 치열한 경쟁과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7

월 대한농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중별 농구대회까지 연간 2회 전국단위 농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 농구 대회의 메카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단위 우수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영광군에서 농구 종목은 지역경제 효과종목으로 꼽힌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연인원 13,000명 이상의 선수단과 외부관람객의 우리군 방문이 예상되며 13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 농구 꿈나무들이 유감없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가려왔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망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광/이현식 기자

전국 최고시설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1주년

광주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개관 1주년을 앞둔 가운데 연간 이용자가 3만 명에 이르면서 광주권 장애인 생활스포츠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관내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 장애인을 비롯해 남구 주민들도 이곳 센터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기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나 됨을 이루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8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전국 최고 시설로 지은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오는 4월 1일 개관 1주년을 맞는다.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이용자는 2만 9,255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437명 가량이 이용 중인데, 올해 3월 한달간 이용자 수까지 합산하면 3만 2,000여명을 거뒀던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반다비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개관 1주년 동안 눈에 띄는 대목은 전체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장애인 7,510명(전체 이용자 25.7%)이 수영과 아쿠아로빅, 보치아,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장애인 생활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한 목적과도 부합해 큰 의

광주권 ‘장애인 생활스포츠 거점’ 자리매김

연간 이용자 3만명 이상...특성화 수영 인기

타 지역 장애인도 이용, 어울림 상징적 공간



미를 갖는다.

이곳 센터가 장애인 생활스포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전체 25개 강좌 중 20개가 장애인 전용 강좌이다.

특히 어린이 특별반을 비롯해 수중 재활반, 초·중·고 장애인반, 주말 어린이반, 성인 기초반, 지적·자폐 장애인

특별반 등까지 수준별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보치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 1주일에 5차씩 1년 동안 장애인 1,580명이 운동을 즐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를 한데 어우르는 따뜻한 운동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재일 기자

클로이 김, 4년 만에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하프파이프 우승

김건희 남자부 6위·최가운 여자부 12위

클로이 김(미국)이 4년 만에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우승했다.

클로이 김은 29일(현지 시간) 스위스 앵가딘에서 치러진 2025 FIS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3.5점을 얻어 정상에 올랐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클로이 김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1년 2연패를 달성한 뒤 통산 3번째 정상이다.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도 휴식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번 우승으로 클로이 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권도 확보했다.

클로이 김은 결선 1차 시기에서 93.5점을 받아 우승을 확정했다.

2차 시기에선 126도 기술에 도전했으나, 착지에 실패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일본의 시미즈 사라(90.75점), 오노 미쓰키(88.5점)가 차지했다. 최가운(세화여고)은 여자부 결선에서 12위(29.75점)에 머물렀다.

남자부 경기에선 스코트 제임스(호주)가 95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5년과 2017년, 2019년 이 종목 3연패를 달성했던 제임스는 6년 만에 다시 정상에 등극했다. 은메달은 일본의 히라노 루카(92.25점), 동메달은 일본의 도쓰카 유토(92점)가 차지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우승자인 김건희(매화고)는 6위(78.25점)에 올랐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향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즌 커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영 운암 3단지 재건축청정사업조합 시영 GS건설 LH(위한화/건설) HDC 현대건설개발

062) 607-8338